

이재명, 경제5단체 만나 ‘친기업 드라이브’

“민생 살리는 핵심은 경제…중심은 기업”
 사법리스크 털어내자 중도확장에 박차
 직능단체와 협약…경제 유튜브버와 생방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경제 5단체장들을 만나는 등 친기업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등으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자 민생을 강조하며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대원 SK그룹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 해주면 적극 수용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연초부터 ‘회복과 성장’ 슬로건을 내걸고 실용주의 경제 노선을 대내외에 천명해왔다.

지난 3월엔 이태원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강

조했고,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싱크탱크 수장과의 면담에 “기업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가진 비전 발표에서도 이 후보는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대위 직능본부(박홍근·남인순 본부장)와 각종 전국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개업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약 27개 직능단체 관계자 500여 명으로부터 이 후보는 ‘풀뿌리’ 경제·민생 분야 단체들의 정책 요구 사항을 수렴했다.

이어 경제 체널 유튜브버들과 유튜브 생방송에 나서 자신의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전달했다.

이 후보는 구독자 110만명의 ‘전인구 경제 연구소’, ‘와이즈트릿’(구독자 73만명), ‘이호석 아카데미’(구독자 39만명),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구독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5만명) 체널 운영자들과 경제·주식시장에 관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깔고 닦은 경제, 민생 비전을 여과 없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괄본부장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파란 낸 경제를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으로 수습하고, 잘사니즘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

국금융노조를 찾아가 선대위 산하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강준현·오기형 위원장)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정책 협약식은 지난 2007년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주식 18조원을 넘게 순매도해서 ‘코리아 엑소더스’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회복과 성장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혁신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성장의 터전,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경제구조와 제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잡았다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반발에 전날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며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NEWS

2025년 5월 9일 금요일

민주, 12일 광화문서 첫 유세
 “빛의 혁명 완성하려는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박정 선대위 유세본부장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세의 전반적인 콘셉트는 ‘광장의 유세’로 잡았다.

박 본부장은 “특정한 테마를 가진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유세 공간인 면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라며 “‘벨트’는 이재명 후보가 만들려는 ‘진짜 대한민국’의 테마”라고 강조했다.

첫 유세 장소로 광화문을 정한 이유로는 ‘빛의 혁명’의 상징성을 들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의 ‘내란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지칭한다.

이재정 본부장은 “124일 동안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함성을 유세의 광장으로 연장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내란에 맞든 대한민국을 치우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임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광화문에서 유세를 시작한 뒤 첫 번째 유세 벨트는 ‘K-이니셔티브 벨트’”라며 “추격의 경제를 넘어 선도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이고, 모방의 시대를 넘어 주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회동 ‘또 빈손’

국민의힘, 당-후보 단일화 놓고 사상 초유 충돌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제에서 공개 진행으로 만났으나 ‘단일화 시기’를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 전에 단일화를 완료하자고 거듭 촉구했고, 다음 주에 단일화를 완료하자는 입장인 김 후보는 “왜 무소속 후보가 당 선출 후보를 압박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어떤 단일화 방식도 당에서 정하면 다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이 결국은 하기 싫다는 말씀과 같이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또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김)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 버린다’는 말 있죠. 그렇게 될 것 같다”며 “제발 ‘일주일 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내일 결판을 내자”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한 후보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고 물었다. 한 후보가 당 경선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부전

승’을 하려 한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에 한 후보는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며 당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미국 관세 대응 등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던 점을 꼽았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이날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을 비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마감일(11일) 이후인 다음 주중 단일화에 나설겠다는 뜻을 밝히자, 당 지도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선을 불과 26일 남긴 시점에서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 등록 10~11일…12일부터 선거운동

29~30일 사전투표…TV토론회 4회 진행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0~11일 진행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각 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서게 되는데 선거운동은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외투표는 20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선상투표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투표용지는 25일부터 인쇄하며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이달 24일까지 발행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사퇴 등)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국내 유권자들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본 투표가 진행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를 위해 각 후보가 참여하는 TV 토론회를 4차례 진행한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 3차례, 초청 외 후보자 대상 토론

회 1차례다.

후보자 초청 기준은 국회에서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비례대표 국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오는 12일 초청 대상을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정의당 후보가 초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대선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당선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택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중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사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광주버스방송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월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문지 “광남일보” 중합광고대행사 “메드하임”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HOTEL 아트하임 (구·비둘기리조트호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

사채은행

메드하임

YBCA

전통발행

국립아시아 문화재단

구시정사채